

국왕 프라세나짓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을 말하여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할까
 고 하시고, 무엇을 말하여 제 몸을 스스로 지킴
 이라 하옵니까” 부처님은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들은 악을 지으면서 능히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기분이 좋다가 뒤에는
 모진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제 몸을 스스로 사
 랑하는 이는 삼가서 지킴 비를 지키게 되며 마음
 을 고루고 몸을 바꾸나니 복은 마땅히 하늘에 오
 르리라” <아함경>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남자를 사고 팔면 그 업보는...

“일류대 출신의 젊고 건강하고 교양있는 단아한 한국남자.”
 이 문안은 취업광고가 아닌 일본에서 한국어 성의 남자를 일본인 불입부부에게 알선하고 있는 광고이다.
 국내에서 불법 남자매매가 거래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불법 남자매매가 이러한 광고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불입 여성만도 모두 249명이고 남자제공회원이 2,029명이라는 사실은 남자매매가 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매매는 지난 해까지는 단순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05년 1월에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자를 기증하거나 기증 받는 것을 제외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자나 남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과정에서 금전적 거래내용을 숨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루어진 남자매매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개 남자매매는 20~30대 여성들이 신용카드 빚, 학자금, 생활고 등 경제적인 이유와 불임부

부의 돈을 주고라도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자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
 첫째, 남자 채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보통 가입 여성들은 한 달에 한 개씩 한쪽의 난소에서 번갈아 배란이 된다. 불임여성들은 보통 기증받은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임신 시도한다. 그러나 체외수정을 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난자가 필요해 난자제공자가 과(過)배란 유도제를 맞는다. 이 호르몬 주사는 제공자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20~30%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난소과자 극중추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난자불법거래는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난자공여자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 나설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브로커들은 난자제공자들로부터 향후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지만 법적 효력은 의문이다. 즉 난자공여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면 친권자를 찾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생애에 관한 성찰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는 남자매매와 관련한 현재의 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A. 허슬리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한겨번에 수천개의 태아를 병속에서 부모되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병에서 나와 부모들에게 의해 양육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허슬리는 과학의 진보는 인류에게 야만세계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생명을 가볍게 보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자애품(自愛品)’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부산 금정중학교 현역제 교복사가 떠난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어린이법회와 중고등학생회 및 대학생불자회 등의 변천사’이다.

현법사가 도표를 통해 밝힌 현황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1993년에 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학생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불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불심이 그 어느지역보다 높다는 부산의 행편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초중고 학생들의 입시위주 교육 양태와 대학생들의 취업중심의 의식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종단과 사찰들의 미래 포교에 대한 투자 의식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앞날을 망각한 근시안적 포교전략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새싹포교’ 없으면 미래도 없다

불문 학생회는 사찰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찰 학생회가 잠깐 신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서양종교의 성공적 선교사례에서 보듯이 새싹포교와 청년포교는 간과할 수 없는 포교전략의 일면지이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학생과 청년세대에 투자했고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꾸준히 이들에 대한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을 불교계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집단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구나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포교청사진을 마련하여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미래불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부서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종도들은 이에 협력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기 사안(事案)이 아니다. 낙락장송도 한 잎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월암(종국대 강사)



이렇게 들었다 대북정책 유감

국왕은 마땅히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멀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布施)·애어(愛語)·사법(沙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정부가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간 북한에 총 5조2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여기에 대북송전비용 3조3200억원을 비롯해 쌀 비료 등 농업 지원 비용 1조 원 그밖에 경공업·수산·광업·과학기술 분야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이미 북부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 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약 80%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경제지원 계획이 ‘북한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대북지원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양실조로 성장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어린이,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밀려진 독에 물만 부을 것인가. 그것도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말이다.

■ 노병철(해부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구총회 살리는 총무원장 직선제

‘현대불교’ 551호를 보면서 조계종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함을 표하고 싶다. 현재의 간선방식을 버리고 직선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총회의 의원들과 본사주지를 비롯한 교구총회의 원 가운데 10명을 선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보되지 않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구총회가 일반대중 스님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될 수 있고 종단의 일에 평대중 스님들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본사들은 수 십년째 이를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평대중 스님들의 의견은 수용할 방안은 거의 없어 보인다.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평대중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총무원장 직선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0년차 이상 승단의 스님들에게 종단의 가장 중요한 행정적 소임인 총무원장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불법 앞에 평등한 종단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백발번뇌(buddhanews.com)

국보1호는 불교문화재로

11월 7일 국보 제1호와 보물 제1호를 지금의 승려분과 흥인지문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문화재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지정번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수년전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과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변경이 좌절된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에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마침,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보 제1호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학계의 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국보 제24호 불국사 석굴암,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을 국보 1호로 꼽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외종에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지 않도록 제70호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내세우려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불교계가 이러한 사

회적 논란에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하경수(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현대불교’ 550호에서 ‘양성평등 지침을 만들자’는 기사를 읽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총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반갑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직되었던 불교계에도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남성과 여성이 존엄한 존재로 서로를 존중·배려하며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양성평등의식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틀에 매여 사는 사람보다 상황에 유연하다고 한다.

불교는 이미 2천6백년전에 사상 유례 없이 여성에게도 출가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주었던 종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비구’와 ‘비구니’ 간, ‘우바새’와 ‘우바이’ 간의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어느 종교보다도 자유롭고 평등해야 할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싹트길 기대해본다.

임경자(서울 동작구 흑석동)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 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창사 기념 12월 한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p>초특가 1,940,000 ▶ 12월 15일 9일</p> <p>1,990,000 ▶ 11/24 12/1,8,22,29 1/5,12</p> <p>●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슈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p> <p>●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 왕사성, 나라다 대학, 룸비니, 쿠슈나가르, 열반당, 샤르나트, 갠지스강, 마하보디사원, 니련선화 및 수자타 마을, 등</p>	<p>아시아나항공 2,090,000 ▶ 12월 11일 11일</p> <p>2,190,000 ▶ 12/4,18,25 1/1,8</p> <p>●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라다-라지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슈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p> <p>●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 왕사성, 룸비니, 쿠슈나가르, 열반당, 샤르나트, 갠지스강, 마하보디사원, 니련선화 및 수자타 마을, 죽림정사, 다엑스포, 나라다대학유적지, 영취산, 등</p>
--	--

<p>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p> <p>출발일 ▶ 11/23,27,30</p> <p>* 여정 : 인천-체토세-노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조진케(1)-삿포로-인천</p> <p>*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아이누민속촌, 지옥계곡, 쇼와신사, 공목장, 분취구, 토야호수 유람선, 후키다사사우물, 이와테성 유적지, 무로란 만계지사찰, 삿포로 동본원사 사찰</p> <p>*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p>	<p>日本 동북 사찰순례 699,000 4일</p> <p>출발일 ▶ 11/21,28 12/5,12</p> <p>* 여정 : 인천-아키타-히라이즈미-하니마케(2)-모리-오카-다자와(1)-아키타-인천</p> <p>*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흑석사, 중촌사, 모월사, 금색대관음, 누토온천, 이와테성 유적지</p> <p>*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p>	<p>中國 북경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p> <p>출발일 ▶ 11/23,30 12/7,14</p> <p>영광사 불아사리탑/벽운사 오백나한당 순례</p> <p>* 여정 : 인천-북경(3)-인천</p> <p>*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빙), 용경원(유람선), 천안공원, 이화원, 유리창</p>	<p>中國 서안 북경 불교 문화 탐방 849,000 5일</p> <p>출발일 ▶ 11/26 12/3,10,17</p> <p>서안 법문사 지하굴, 병마용/북경 영광사 및 벽운사</p> <p>* 여정 : 인천-북경(2)-서안(2)-인천</p> <p>*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서안 법문사 지하굴, 병마용, 진시황릉, 화청지, 북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 순례,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순례, 북경-만리장성, 명13릉, 천안문 광장, 자금성, 천안공원, 이화원 등 순례</p>	<p>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p> <p>출발일 ▶ 11/22,29 12/6,12</p> <p>*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p> <p>*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옥불사, 홍구공원, 정산사, 용화사, 서커스 관람, 영은사, 한산사, 출정원, 발발사지 체험, 서호 유람, 동방명주탑</p>	<p>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6일</p> <p>출발일 ▶ 11/29 12/6,13,20,27</p> <p>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회귀 체험</p> <p>*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p> <p>*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p> <p>*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 섹람사, 첼분사, 포탈라궁, 대소사, 팔각가순례), 시가체(저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가사, 암포호 순례)</p>
--	--	--	--	---	---

공동사행: 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사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제 항공사 이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팀 불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